

셀토스 인기...기아차 광주공장 불황에도 선전

지난해 45만5865대 생산
5년만에 생산량 소폭 반등
쏘울 9.4%, 스포티지 7.2% 감소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시장 불황에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셀토스의 인기로 힘입어 생산량이 소폭 증가하는 등 선전했다. 특히 2014년 이후 4년 연속 생산량 감소세를 보였던 광주공장은 지난해 소폭이지만 반등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6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지난해 총 생산량은 45만5865대로 전년(45만5252대)에 비해 0.1%인 613대 늘었다.

지난해 수출은 32만6946대로 전년(35만993대)보다 6.8%인 2만4047대 줄었다. 하지만, 내수가 12만8919대로 전년(10만4259대)보다 23.7%인 2만4660대 늘었다.

특히, 지난해 7월 출시된 셀토스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내수 불황을 이겨냈다.

셀토스는 7월 5880대, 8월 5300대, 9월 7150대, 10월 9356대로 점차 늘었다. 11월 1만730대, 12월 1만15대를 생산, 두 달 연속 생산량 1만대를 돌파했다.

예초 이러한 셀토스의 인기로 힘입어 기아차 광주공장 작년 생산량이 전년보다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2월 3차례 부분 파업으로 생산계획에 차질을 빚어 증가폭이 줄었다.

지난해 기아차 광주공장의 주요 차종별 생산량은 쏘울(전기차 포함)이 14만2023대로 전년 동기(15만6716대)보다 9.4%인 1만4693대 감소했다. 스포티지도 17만663대로 전년(18만3908대)보다 7.2%인 1만3245대 줄었다. 봉고 트럭은 9만1375대로 전년(9만3745대)보다 2.5%인 2370대 감소했다.

특히, 수출 주력 차종인 쏘울은 2018년 35만993대를 수출했지만, 지난해에는 61.1% 급감한 13만6608대를 수출하는데 그쳤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2006년 31만2622대를 생산해 연간 생산량 30만대를 돌파한 후



생산량 감소세를 보이던 기아차 광주공장은 셀토스 인기로 힘입어 5년만에 소폭 증가로 돌아서는 성과를 거뒀다. 기아차 광주1공장 셀토스 생산라인. (기아차 제공)

2010년 41만1196대로 40만대 생산시대를 열었다. 2014년 53만8896대로 50만대를 처음으로 넘어섰고, 2015년 53만3483대를 기록한 후 생산량이 50만대 아래로 떨어졌다. 기아차 광주공장 한해 최대 생산능력은 62만대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3차례 파업이 생산량 증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올해는 수출시장이 활성화되고 노사관계가 원만해져 생산량이 크게 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운전대 손 떼도 알아서 간다

자율주행차 7월 출시... '레벨3' 기준 세계 첫 도입

국도교통부가 세계 최초로 레벨3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자율주행차량이 나올 수 있게 됐다.

국도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부분 자율주행차' (레벨 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는 자동 차로 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자동 차로 유지기능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이다.

기존 '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했을 때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 알람이 울리는 정도여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했다.

레벨3 안전기준이 도입되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도 차로를 유지하며 자율주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안전기준 개정안은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분류(레벨 0~5)상 레벨3는 부분 자율주행으로, 레벨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으로, 레벨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해 정의했다. 레벨5는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가 없이 운전이 가능한 자율주행 수준이다.

또 레벨3 자율차가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에 들어서거나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나 마주치는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벗어난 경우 즉시 혹은 15초 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착석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때만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했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등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향후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를 변경하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레벨3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자율차 성능 검증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봉고3 EV'



제네시스 첫 SUV 'GV80'

트럭도 전기차 시대...기아차 광주공장 '봉고3 EV' 생산

완충시 211km 주행 가능
경제성·적재 편의성 우수

트럭도 전기차 시대가 활짝 열렸다. 지난달 현대차 '포터 II'에 이어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봉고3' 전기차가 출시됐다.

기아자동차는 소형트럭 봉고3의 전기차(EV) 모델 '봉고3 EV'를 광주공장에서 생산,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기아차 트럭 최초의 전기차 모델인 '봉고3 EV'에는 135kW 모터와 58.8kWh 배터리가 탑재됐다. 100kW급 충전기를 이용하면 54분 만에 급속 충전을 마칠 수 있고, 완충 시 211km를 주행할 수 있다.

봉고3 EV에는 적재 중량을 실시간 감지해 주행가능 거리를 안내하는 기술이 적용됐으

며, 제동 시 발생하는 에너지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회생제동 시스템도 갖췄다. 전동식 파워스티어링(R-MDPS), 버튼 시동 시스템, 전자식 파킹브레이크(EPB) 등 기능이 모든 트림(등급)에 기본 적용돼 기존 모델보다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낮은 적재고와 적재함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평바닥 옵션을 적용, 우수한 적재 편의성을 갖췄다는 평이다.

봉고3 EV 가격은 트림별로 GL 4050만원, GLS 4270만원이다.

여기에 등록 단계에서 주는 세제혜택(취득세 140만원 한도 감면)과 화물 전기차에 주는 정부 보조금 1800만원 및 지자체별 보조금을 합하면 실제 구입 가격은 2000만원대다. 공영주차장 주차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제네시스 첫 SUV 'GV80' 디자인 공개...“웅장하고 세련”

현대자동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처음 출시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80'의 디자인을 최근 공개했다.

'GV80'은 제네시스의 독창적이고 고급스러운 '역동적인 우아함'을 디자인 콘셉트로 삼아 대형 SUV 특유의 웅장함과 강한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현대차는 소개했다.

전면부는 방패 모양 크레스트 그림을 중심으로 좌우에 4개의 얇은 퀴드램프를 적용, 독창적인 디자인을 강조했다. 제네시스만의 고유 문양 '지-매트릭스' 패턴도 적용했다.

측면부는 퀴드램프에서 시작해 전륜 휠하우스와 도어 상단부를 거쳐 후륜 휠하우스까지 이어지는 완만한 포물선인 '파라볼릭 라인'(Parabolic Line)이 특징이다. 3열을 갖춘 대형 SUV임에도 쿠페처럼 날렵하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을 적용, 다른 대형 SUV와 차

별화를 꾀했다. 국산차 최대인 22인치 휠을 장착해 볼륨감을 극대화했고, 물결 모양의 바닛살 곳곳에도 '지-매트릭스' 문양을 넣어 제네시스 정체성을 강조했다.

내장 디자인은 한국 특유의 미적 요소인 '여백의 미'를 강조하려 했다.

첨단 사양을 많이 적용했지만, 복잡한 조작 버튼을 배치하는 대신 단순하고 깔끔한 공간으로 구현해 운전자가 안락함을 느끼면서 편안하게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현대차 설명이다.

날렵한 형태의 송풍구를 양측 문과 만나는 지점부터 전면부를 가로질러 길게 배치해 전면이 넓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고, 액정표시장치(LCD)의 터치패드 적용도 확대해 센터패시아 조작 버튼을 최소화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설 명절 현대·기아차 타고 고향 가세요

465대 무상 대여 시승 이벤트

현대·기아차는 올해 설을 맞아 귀성 차량으로 총 465대를 무상 대여하는 '설 명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벤트를 위해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250대, 215대 차량을 투입한다.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대차의 경우 6박7일 동안 시승차를 지원한다. 대상 차종은 쏘나타와 쏘나타 하이브리드(HEV), 베뉴, 코나, 코나HEV, 투싼, 싼타페, 팰리세이드 등으로 구성됐다. 명절기간인 이달 23일부터 29일까지 시승해 볼 수 있다. 오는 14일까지 현대차 공식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된다. 당첨자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기아차도 23일부터 28일까지 5박6일간 시승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 차종은 신형 K5 150대를 비롯해 K7 프리미어 20대, K9 20대, 스타팅 10대 등이다. 중증 장애인 가정을 위해 카니발 이지무브 차량 15대도 준비했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17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당첨 결과는 1월 20일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기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1월호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우리 동네에는 예술가가 산다

예술인마을과 열린 스튜디오

- 일상을 예술처럼, 여기가 예술인 마을
- 광주 예술의 거리, 아티스트들의 등지로
- 예술플랫폼으로 열린 작가 스튜디오
- 제주 저지예술인마을을 가다

트렌드 읽기

2020 업글인간, 오팔세대 페어플레이어를 주목하라

클릭, 문화현장③ 제주 빛의 벵거 클림트 감동 있는 반 고흐전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네팔 유 보다나트 사원 페와 호수의 전설

기획-도시 디자인, 행복한 도시공공의 완성-1포스트로그 공간에 생기 불어넣는 도시디자인 탐구 시작

광주광역시 초대 총괄 건축가 함인선

"광주 대표도서관을 명품건축으로"

문향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④ 호방한 기질과 감성 담은 시 전남 나주 백호 문학관

한국영화 100년-남도시네마 선택 유 한 세기 남도영화, 한국적 정서 담았다

김경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⑥ 바우하우스 예술교육의 양 날개 '형태'와 '재료'

전시 화제 '손장섭-역사가 된 풍경'전

황인의 '예술가의 한 끼'① 화가 천경자의 집밥

유현준의 도시건축⑥ 사찰 설계에 적용된 도교사상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웰드라마로 여수 홍보하는 여수시청 김상욱 그라운드와 특별한 KIA타이거즈 윤석민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⑩ 아이들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본다

문화 트렌드 국악 크로스오버 바람 신한류가 몰아친다

절경과 숲 깊은 문화 화순 겨울여행

정범 투어와 운주사와 불 달콤 딸기와 파프리카